

독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2021년 5월 14일 (KIST 유럽연구소 변재선 책임연구원)

1. 다양한 코로나 백신 결합 연구 시작 (Studie gestartet, die verschiedene Corona-Impfstoffe kombiniert)

생성기관

Der Standard

원문 작성일

2021-5-11

원문 링크

<https://www.derstandard.de/story/2000126572058/studie-gestartet-die-verschiedene-corona-impfstoffe-kombiniert>

백신 교차 접종 관련

- Covid-19 백신의 경우 아직 연구되지 않았지만 다른 백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종 백신이 종종 동종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 인스부룩 의과대학은 다양한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조합을 시험하는 연구를 시작함
 - 인스부룩, 그라츠 및 비엔나 의과대학 의료진 약 3,000명이 연구에 참여
 - 이미 우선 순위에 따라 바이오엔텍/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았으며 2차 접종이 예정됨
 - 2개 그룹은 계획대로 1차와 동일한 백신을, 세 번째 그룹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받은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가을에 연구 결과 발표 예정
- 독일에서는 교차 접종을 시행중이나 오스트리아 국가백신접종위원회(NIG)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종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2. 옥스퍼드 대학 연구, 백신 혼합은 잦은 부작용을 가져오나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됨 (Studie der Universität Oxford, Impfstoff-Mix führt häufiger zu Nebenwirkungen - doch die Wirksamkeit bleibt gleich)

생성기관
Focus
원문 작성일
2021-5-13
원문 링크
https://www.focus.de/gesundheit/news/neue-studie-erst-astrazeneca-dann-biontech-impfstoff-mix-fuehrt-haeufiger-zu-nebenwirkungen_id_13292973.html

- 옥스퍼드 대학 백신 혼합/교차 접종 연구 결과
- 독일 상설예방접종위원회(Stiko)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 할 것을 권장하나,
 - Astrazeneca 백신 접종을 받은 60세 미만에게는 2차 접종을 mRNA 백신 (Biontech/Pfizer 또는 Moderna)을 9 ~ 12 주 후에 접종하도록 권장함
-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벡터와 mRNA 백신간 조합은 부작용을 증가시킴("The Lancet"에 게재 1차 데이터)
 - 피로, 두통, 오한 및 관절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2차 접종후 증가함
- 연구팀은 50세에서 69세 사이의 총 830명의 남녀 연구 자원 참가자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조사
 - 1 그룹은 Biontech/Pfizer, 2그룹은 Astranzeneca 동일 백신을 1,2차 접종, 3그룹은 Biontech/Pfizer 1차, Astranzeneca 백신을 2차, 4그룹은 우선 Astrazeneca, 2차 Biontech/Pfizer 백신을 4주 간격으로 교차 접종함
- 서로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한 두 개 그룹은 2차 백신 접종후 부작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Astrazeneca 접종후 Biontech/Pfizer 접종 110명중 37명(34%)이 발열 호소
 - *비교: 1,2차 Astrazeneca 백신 접종 그룹 112명중 11명(10%) 보고
 - Biontech 접종후 Astrazeneca 접종 114명중 47명에게 발열 발생 (41%).
 - *비교: 1,2차 Biontech/Pfizer 접종 그룹 112명중 24명 (21%) 보고

- 오한, 피로, 두통, 관절 및 근육통, 경미한 통증 등의 반응이 교차 접종 그룹 2차 접종 48시간내 더 많이 발생, 병원 치료 없이 진통제(파라세타몰) 복용
 - Astrazeneca 동일 접종 그룹, 112명중 40명(36%)
 - Astrazeneca/Biontech 교차 접종 그룹 110명 참가자중 63명(57%)
 - Biontech 동일 접종 그룹 참가자 117명중 48명(41%)
 - Biontech/Astrazeneca 교차 접종 그룹 참여 114명중 68명(60%)

- 이러한 초기 데이터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중 백신으로 교차 접종시 이러한 부작용이 젊은 연령층에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의심, 그러나 환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음
 - 면역 반응에 대한 영향은 아직 확인할 수 없음, 앞으로 몇 달후 발표 예상

- 옥스포드, 매튜 스네이프(Matthew Snape) 책임자는 "연구 결과는 이중 백신 교차 접종 다음날 결근 증가를 시사", 보건분야 직원 예방 접종 계획에 중요
 - 이 연구는 지난 4월에 Astrazeneca와 Biontech/Pfizer에 이어 Moderna 및 Novavax 백신을 추가 확장됨, 결과는 아직 미공개

- 옥스포드 교차 접종 연구에서 신체 면역 반응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동일 백신 접종시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에어랑엔 대학 크리스티안 보그단(Christian Bogdan) 교수는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Stiko 대표 메르텐스(Mertens)는 교차 접종후 벡터와 mRNA는 사라지고 면역 항원만 남음, 더 나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언

자료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1\)01115-6/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1)01115-6/fulltext)

3.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2차 접종? 의료인은 명확히 경고 (Johnson & Johnson-Impfstoff als Zweitimpfung möglich? Mediziner mit klarem Appell an die Bürger)

생성기관

Merkur

원문 작성일

2021-5-10

원문 링크

<https://www.merkur.de/leben/gesundheit/johnson-johnson-impfstoff-zweitimpfung-moeglich-mix-and-match-impfungen-risiken-zr-90573046.html>

1회 접종 얀센 백신의 2차 접종 가능성

- 백신 완전 접종자 혜택 도입후 독일내 많은 사람들이 완전 접종을 희망하고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백신의 우선순위가 해제됨
 - 전문가들은 두 가지 다른 코로나 백신 접종의 혼합 접종(Mix-and-match)를 옹호함
 -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1회 접종용인 Johnson & Johnson의 얀센백신으로 2차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유용한 지에 대해 회의적임

- 이론적으로는 고려 가능하지만 사전 연구도 없이 다른 벡터 백신이나 mRNA 백신 접종이후 J&J 얀센 백신을 2차 접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이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1회 접종용 얀센 백신의 완전 접종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임

4. 노바백스 인플렌자와 코로나 19 복합 백신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전임상 자료 발표 (Novavax gibt positive präklinische Daten für Kombinations-Impfstoffkandidaten gegen Influenza und COVID-19 bekannt)

생성기관

Presse Portal

원문 작성일

2021-5-11

원문 링크

<https://www.presseportal.de/pm/77516/4913115>

- 노바백스사 NanoFlu/NVX-CoV2373 복합 백신 전임상 결과 성공적
- 노바백스사는 계절성 독감백신(NanoFlu(TM))와 코로나 백신(NVX-CoV2373)의 조합으로 만든 복합백신에 대한 전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
 - NanoFlu/NVX-CoV2373로 만든 복합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SARS-CoV-2 모두에 긍정적인 면역 반응을 보였음
 - 임상 데이터는 생물학 사전 인쇄 서버인 bioRxi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복합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연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독감 환자가 줄었지만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전 세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음
 - 독감 예방을 포함,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백신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함
 - Novavax 연구개발 대표 Gregory M. Glenn는 새로운 조합의 백신 후보가 두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와의 장기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미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함
- 동물 대상 전임상 연구에 따르면 NanoFlu와 NVX-CoV2373 (qNIV / CoV2373)의 혼합 백신은 기능성 인플루엔자와 COVID 항체를 유도함
 - 혈구 응집억제(HAI) 및 ACE2 수용체 억제 역가는 조합 백신과 각각의 성분 백신을 사용한 면역화간에 유사하였음
 - 항체 역가는 1차 투여후 2주에 증가했으며 2차 접종후 2주후 면역이 더 증가하였음.

참고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1.05.05.442782v1>

5. 백신 접종 세대간 형평성, 젊은이 위해 바이오엔텍(화이자) 백신을 조금 남겨주세요! (Generationenungerechtigkeit beim Impfen, Lasst den Jungen ein bisschen Biontech übrig!)

생성기관

Der 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11

원문 링크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mehrheit-gegen-sofortige-erleichterungen-corona-regeln-werden-fuer-geimpfte-und-genesene-gelockert/27168938.html>

□ 백신 접종 세대 갈등

- 독일 상설 예방접종위원회(Stiko)에서 60세 이상에게 AstraZeneca 백신을 권고하였고 다른 백신 대안이 있어도 많은 고령층이 Biontech (화이자)백신 접종을 희망
 - 60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Biontech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실패는 전체 독일 예방 접종 캠페인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독일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노인들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범안을 지지함

- 독일에서 Biontech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수십만명이 2차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1차 접종은 다음 주부터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함
 - 6월 초까지 Biontech 백신 공급 증가가 없을 것이며 Moderna 배송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조기 예방 접종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AZ와 J&J를 선택할 수 있음, 역설적으로 Stiko는 두 벡터 백신은 60세 이상에게 권장함

6. 백신 전략: 곧 예방접종 우선순위가 해제될 것이지만 좋은 것인지? 영국 연구는 어떤 전략이 "최적"인지를 보여줌 (Impfstrategie: Bald soll die Impfpriorisierung fallen, aber ist das gut? UK-Studie zeigt, welche Strategie "optimal" ist)

생성기관

msn/stern

원문 작성일

2021-5-11

원문 링크

<https://www.msn.com/de-de/gesundheit/medizinisch/impfstrategie-bald-soll-die-impf-priorisierung-fallen-aber-ist-das-gut-uk-studie-zeigt-welche-strategie-optimal-ist/ar-BB1gzkHF?ocid=msedgdhp>

- 독일 백신 우선순위 해제 논의와 영국 워릭 대학 백신 전략 연구 시사점
- 독일 연스 슈판(Jens Spahn) 보건부 장관은 6월에 예방접종 우선 순위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함,
 - 9월 21일까지 모든 희망자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백신 접종 희망자들의 대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 백신 완전 접종자의 혜택 도입 이후 젊은 층의 조급함이 증가하고 부러워하고 있음
- 영국 워릭(Warwick) 대학의 모델링 연구는 예방접종 우선 순위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혜택을 가져 왔는지 보여줌
 -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신 전략을 조사 결과, 모든 시나리오 중 "고연령 취약 계층에 백신 접종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The Lancet"에 논문을 발표함
 - 노인 우선 접종은 사망자를 크게 감소시킴, 그러나 노인들은 결정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님, R값을 높이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아야함
 - 또한 연구진은 연령과 기저질환간 강력한 연관성을 발견, 연령 접근 방식이 이미 취약계층 접근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의미함

○ 독일은 우선접종 순위 해제 준비가 되었나?

- Stiko에 따르면 80세 이상 중 80%는 1차 접종, 62%는 2차 접종 완료, 70~79세의 46%와 60~69세의 69%는 4월말까지 미접종 상태, 젊은 기저질환자중 약 1/4만이 1차 접종 완료
- 상설 예방접종위원회(STIKO) 토마스 메르텐스(Thomas Mertens) 의장은 백신 우선순위 해제 계획을 "불공평하고 현명하지 않다" 비판

○ 슈판 보건부 장관은 Astrazeneca와 Johnson & Johnson 백신의 경우 이미 우선순위에서 해제함

- 6월과 7월에 많은 분량의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대부분은 이미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주장

○ 우선순위는 백신 부족시 도입되었으며 우선, 심각한 위험 집단을 보호하여 사망률을 낮추어야 함

- 목표는 집단면역을 달성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면역되도록 만드는 것임
- 영국 연구에 따르면, 70% 예방 접종시 집단 면역 달성 가능, 독일 진행 상황에 따르면 9월초에 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pandemieende.de" 기준)

참고

<https://journals.plos.org/ploscompbiol/article?id=10.1371/journal.pcbi.1008849#pcbi-1008849-g003>

7. 사회적 접촉이 많은 집단, 젊은 사람에게 다음 백신 접종 우선권? (Gruppe mit vielen sozialen Kontakten, Vorrecht für Jüngere? Wer als Nächstes geimpft werden müsste)

생성기관

Tages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14

원문 링크

- 독일 백신우선 순위 해지 논의
- 독일 바이에른과 바덴 뷔르템베르크에 이어 베를린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의원을 통한 모든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 순위 규정을 폐지함
 - 희귀 부작용 때문에 벡터 백신을 노인 남성과 여성에게 접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결정임
 - 반면에 상설예방접종위원회(StiKo)는 60세 이상 우선 순위를 지속할 것을 계속 권장함
- 동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펜데믹 이후 노인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자유를 제한 받은 사람들을 위한 세대간 정의에 부합함
 - 또한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접종으로 감염 수와 발생률이 감소, 위험 집단의 감염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어 들 수 있음
 - 젊은 성인을 우선하는 다른 주장은 그들이 경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임
- 인도네시아는 60대 미만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함,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었는지에 대한 평가 데이터는 거의 없음
 - 왜냐하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매우 많고 백신 접종자가 너무 적음
 - 2억 7천만 인구중 이미 800만명 이상 백신을 접종 받음, 대부분 중국 Sinovac을 접종받았지만 효과가 유럽 백신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옥스퍼드 대학 철학자, Alberto Giubilini 교수는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정확할 수 있다고 “The Ethics of Vaccination”(2019년 출판)에서 주장
 -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어려운 과정을 피할 것이라 주장

- 프라이부르크 대학 감염예방연구소 하요 그룬드만(Hajo Grundmann) 소장은 독일 중환자실 입원율이 아직 높아 논의가 시기 상조라고 생각, 우선순위 유지를 지지함
- 에어랑엔 대학, 크리스티안 보그단(Christian Bogdan)과 뮌스터 대학 안드레 카르쉬(André Karch)도 계속 위험 집단이 우선 백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8. 연구 토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게놈에 침투하나? (Diskussion über Studie, Gelangt das Coronavirus in menschliches Erbgut?)

생성기관
Der 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11
원문 링크
https://www.spiegel.de/wissenschaft/medizin/corona-gelangt-das-coronavirus-in-menschliches-erbgut-und-sorgt-so-fuer-staendig-positive-tests-a-9d33efa9-3d63-4b92-bd4e-6fa4553c569a

-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인간 게놈 침투 가능성 논의
- 미국 메사추세츠 캠브릿지에 소재한 화이트 헤드 생의학 연구소(Whitehead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 in Cambridge)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각이 감염자의 게놈에서 발견됨
- 연구팀은 인간 세포의 게놈에서 Sars-CoV-2 병원체의 작은 유전 물질 조각의 징후를 발견함
- 바이러스 게놈의 단편은 감염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PCR 검사가 양성 결과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능성 바이러스는 작은 조각에서 재구성될 수 없으며 감염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험하지 않다고 연구팀은 강조함
-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인간의 DNA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대학 병원의 산드라 시에섹(Sandra Ciesek) 원장은 점막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경우 재감염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함
 - 감기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는 종종 감염후 몇주동안 PCR 검출될 수 있음
 - "Plos One"이 미국에서 재차 양성 반응을 보인 피험자를 대상으로한 분석에 따르면 피험자의 90%가 재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간 게놈은 소위 DNA(데옥시리보핵산)로 구성, Sars-CoV-2 포함 RNA 바이러스의 경우 유전정보는 RNA(리보 핵산)로 구성되어 구조가 상이함
 - 바이러스 RNA가 인간 게놈에 들어가려면 생물학적 도구를 통해 DNA로 전사된 다음 게놈에 통합되어야 함
 - AIDS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와 같은 일부 병원체는 RNA를 DNA로 전사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임

- 튀빙엔 소재 막스플랑크 발달생물학연구소(Max-Planck-Institut für Entwicklungsbiologie)의 올리버 바이헨리이더(Oliver Weichenrieder)는 연구팀이 실험에서 사용한 역전사 효소가 때때로 바이러스 RNA를 인간 게놈에 통합시킨다고 주장함

- 로버트코흐연구소(RKI)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요아힘 덴너(Joachim Denner)는 Sars-CoV-2 RNA 단편이 인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증거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인간세포에서의 효소 활동은 극도로 낮다고 주장함
 - 이 논쟁은 mRNA 백신의 구성 요소가 인간 게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불러 일으켰지만 과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음
 -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신의 RNA 게놈을 DNA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포함하기 때문에 mRNA 백신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
 - Sars-CoV-2-RNA 백신이 단편적으로 DNA로 전사되어 세포 게놈에 통합될 확률이 거의 0이라고 강조함
 - 생화학자 바이헨리이더(Weichenrieder)는 "Sars-CoV-2-RNA의 DNA통합은 학문적으로 흥미롭고 과학적으로 더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9. 모순적 결과: 라우터바흐 스푸트니크V 승인에 회의적 („Ergebnisse bleiben widersprüchlich“: Lauterbach skeptisch wegen Sputnik-V-Zulassung)

생성기관

RND

원문 작성일

2021-5-13

원문 링크

<https://www.rnd.de/gesundheit/thrombosen-nach-astrazeneca-impfung-fuehrt-dunke-lziffer-zur-unterschaetzung-des-risikos-UDEM6NIRJVB45PJOWRU35PVXRQ.html>

스푸트니크 V 승인 관련

- 독일은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이미 계약을 통해 3천만 회분을 확보, 공급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럽의약품청(EMA)승인이 없음
- 독일 사민당 보건전문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Sputnik-V 승인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그 이유는 모순된 연구 결과와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투명성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함
 - 2월초 "The Lancet"에서 백신 효과 데이터를 발표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판함
 - 또한 Sputnik V 3상 효과에 대한 예비 데이터는 명백한 오류와 부정확성이 있음
 - 러시아 연구원들은 "The Lancet"에서 과학적 표준에 따라 모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발표하였지만 비평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함
- 작센 등 동부 독일에서는 특히 러시아 백신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럽 승인시 Sputnik V 도입에 적극적임
 - EU 이외의 국가들도 스푸트니크 V를 상이하게 평가, 터키는 긴급 라이선스를 발급했지만 브라질은 수입을 금지함

10.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로그 (Live Blog Coronavirus-Pandemie)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5-14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newsticker/liveblog-coronavirus-freitag-231.html#Griechenland-akzeptiert-Impfnachweise-auf-Deutsch	

□ 코로나 단신 업데이트

○ 작센주 의원에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제 (Sachsen hebt Impfpriorisierung in Arztpraxen auf)

- 작센주 모든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 우선 순위가 5월 24일부로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
- 이는 의사가 예방접종 조례와 관계없이 예방 접종 순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슈판 보건부 장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Gesundheitsminister Spahn mit AstraZeneca geimpft)

- Jens Spahn 연방 보건부 장관은 가정의와 상의후 AstraZeneca 백신을 접종 받음
- Spahn 장관은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기에 완전 접종에 1회만 필요함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요 증가 (AstraZeneca-Impfungen zunehmend gefragt)

- 일시적 회의론 이후 독일에서 AstraZeneca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가시적으로 증가함
- 지금까지 권장된 12주에 비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지만 2차 접종 간격을 4주로 단축, 많은 젊은 사람들이 4주 만에 일상생활과 여행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영국, 다시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지정 (Großbritannien gilt wieder als Corona-Risikogebiet)
 - 독일 연방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부터 영국을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다시 분류함
 - 그 이유는 인도와 이웃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극적인 감염 증가를 야기한 인도 변이, B.1.617.2가 영국에서 최소한 제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임